

About the study

'2022 EY 일자리의 현재와 미래(EY Work Reimagined 2022) 설문조사'는 EY가 전 세계 22개국의 1,500여 기업 임원들과 직장인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기업과 직원들의 직장에 대한 요구와 기업들의 대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조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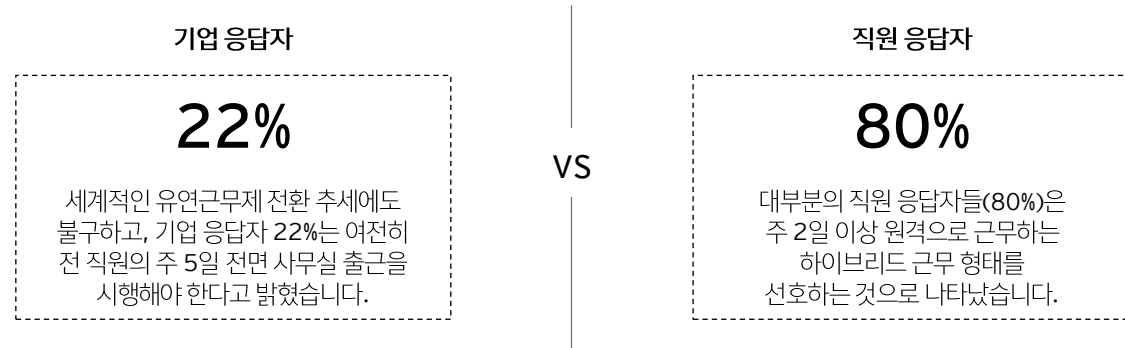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과 인력난 심화로 '대퇴직(The Great Resignation)'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본 자료는 '2022 EY 일자리의 현재와 미래 설문조사' 주요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EY.com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뒷면 QR코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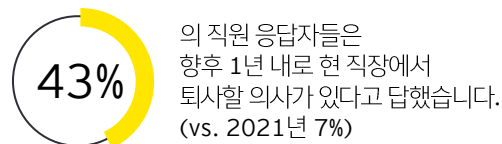
EY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업무 방식, 이직 기회 및 보상 체계, 그리고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에 대한 기업(임원 및 경영진)과 직원들의 시각 차이 및 변화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전략을 제시합니다.

Key Findings

팬데믹 이후 직원들은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선호하는 반면, 이에 대해 기업들은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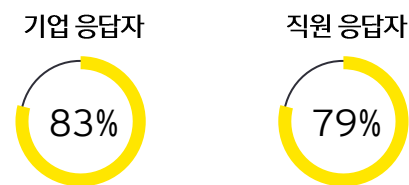
대퇴직(The Great Resignation) 시대의 도래와 함께 직원들의 퇴사 및 이직율이 급증하였습니다.



국가 및 연령별로는 미국 MZ세대(53%)가, 업종별로는 IT중사자(60%)가 올해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이직 고려 사유:
 1. 임금 인상(35%)
 2. 승진(25%)
 3. 유연근무 증가(19%)

기업과 직원 응답자 모두 보상 체계 변화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습니다.



기업 응답자(83%)와 직원 응답자(79%)는 임금을 포함한 보상 체계 변화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변화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37%) 2. 근무 유연성(36%) 3. 복지(3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금(35%) 2. 근무 유연성(32%) 3. 승진(25%) |
|--|--|

Key Findings

조직의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비즈니스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관론자 ¹⁾	vs.	비관론자 ²⁾
팬데믹 대응에 성공적이었다.	95%		61%
유연근무를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90%		53%
직장에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47%		19%
원격근무의 생산성을 측정하고 있다.	46%		18%

- 1) 낙관론자(기업 응답자의 32%):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졌으며 사내 문화와 생산성이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기업
- 2) 비관론자(기업 응답자의 11%): 변화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며 사내 문화와 생산성이 악화되었다고 느끼는 기업

기업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통해 조직 내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개선을 시도해야 합니다.

- ▶ 직원 응답자(82%)와 기업 응답자(79%) 모두 조직의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 ▶ 직원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20%)을, 기업들은 채용 기준 재검토(17%)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EY Insights

팬데믹 이후 기업들의 조직 혁신 전략

- ✓ 원격 근무 지원 기술 등 조직에 최적화된 근무 모델을 도입하여, 사무실과 디지털 공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 파격적인 보상 및 승진 체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 ✓ 변화에 수용적인 유연한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2022 EY 일자리의 현재와 미래 설문조사' EY한영 보도자료

'2022 EY 일자리의 현재와 미래 설문조사'에 대한 더 자세한 결과를 담은 EY 글로벌 아티클(영문)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exists to build a better working world, helping create long-term value for clients, people and society and build trust in the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nd technology, diverse EY teams in over 150 countries provide trust through assurance and help clients grow, transform and operate.

Working across assurance, consulting, law, strategy, tax and transactions, EY teams ask better questions to find new answers for the complex issues facing our world today.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22 Ernst & Young Han Young
 © 2022 Ernst & Young Advisory, Inc.
 All Rights Reserved.

APAC No. 05000878

ED None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